조운동네 좋은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지하도상가

2024년 12월 15호

좋은 사람 모여라 MISSION

12월 21일, 22일 지하도상가에서 진행되는 행사명은?

조운동네 좋은소식 15호를 보고
문제를 맞혀 주세요.

yeahey1011@wehago.com으로 정답과 연락처 발송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는 개별 회신 드립니다.

기간 2024년 12월 15일 부터 31일까지
발표 2025년 1월 6일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조운동네 카카오톡 채널

국토교통부 춘천시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조운동네 문화가 숨쉬는

CONTENTS

조운 게시판 1

그래도 조운 2

조운 미식회 8

조운 친구들 12

조운동네 2024 14

우리는 즐겁게 16

좋은 소식 17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4년 12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제작 도서출판 산책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CONTENTS

조운 게시판 1

그래도 조운 2

조운 미식회 8

조운 친구들 12

조운동네 2024 14

우리는 즐겁게 16

좋은 소식 17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4년 12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제작 도서출판 산책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좋은 소식

상상 한 겨울

12월 21일, 22일 겨울 숲속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연말을 맞이해 지하도상가에서 문화행사 〈상상 한 겨울〉이 진행되니 설레는 마음 안고 놀러 와주세요~

문의 033-250-4937 편지영 코디네이터

웰컴 조운동네

요선동 조운웰컴센터에서 〈웰컴 조운동네〉가 진행 중입니다. 사전 모집 프로그램으로 3주 동안 각종 체험과 공연이 채워진 반짝이는 주말을 즐길 수 있어요!

문의 033-250-4936 우정현 코디네이터

2025 상상언더그라운드 입주팀 모집

2025년 상상언더그라운드 공실 입주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되니 자세한 내용은 조운동네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춘천 모델들, 국제뷰티페스티벌 석권!



모델협회 춘천지회가 2024 원주 국제뷰티페스티벌에서 화려한 수상 소식을 전했어요! 최우수상은 윤재순 님, 금상은 성수미 님, 동상은 동선자 님이 차지하며 실력을 빛냈습니다. 특히 춘천 지하도상가 소공연장에서의 꾸준한 준비가 큰 힘이 되었고, 런웨이 의상도 지하도상가에서 직접 구매해 지역 상권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받았답니다.

그래도 조운



LP 한 장의 여유, 아날로그의 낭만을 담다

요싸롱 레코드 _ 박승훈

요싸롱 레코드는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나요?

2019년, 코로나로 인해 공연과 집회가 중단되면서 뮤지컬 음악 감독이자 기획자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감정적으로도 힘들었죠. 그때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비로소 음악을 온전히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언제부턴가 바쁜 작업과 활동에 쫓겨 음악을 일로써만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멈춰버린 그 시기가 음악을 다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특히 LP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는 과정은 단순한 청취를 넘어 음반을 꺼내 닦고, 앰프를 맞추고, 볼륨을 조율하며 시간을 들여야 해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렇게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요싸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싸롱 레코드는 어떤 공간인가요?

요싸롱은 복합문화공간이에요.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음반 교환 벼룩시장, 청음 모임 등을 통해 음악 애호가들이 교류하고 있어요. LP뿐 아니라 옛날 카세트, 라디오 음원 등 다양한 아날로그 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고, 구매 전 청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도 LP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학생은 사고 싶었던 음반을 사기 위해 오랫동안 기른 머리를 잘랐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이 음반을 사주는 조건이었대요(웃음). 설렘 가득한 얼굴로 음반을 고르는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연말에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요?



연말에는 무엇보다도 캐롤이죠. 개인적으로 오래된 한국 가요 캐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배호 선배님의 중후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캐롤 음반이나, 조영남 선배님이 신중현 악단과 함께 작업한 음반들은 정말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나훈아 선배님의 캐롤은 특유의 구수함과 한국적 감성이 묻어나죠.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캐롤을 듣는 분이 많지만, 아날로그 LP로 듣는 캐롤은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LP 특유의 지직거리는 노이즈는 마치 장작 타는 소리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요싸롱에 오시면 이 특별한 경험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연말엔 우리나라 가요 캐롤을 통해 새로운 감성을 느껴보세요.

그래도 조운



춘천 음악의 든든한 버팀목

삼익악기사 _ 조성호

삼익악기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삼익악기와의 인연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익악기 본사는 직원 수만 천 명이 넘었고, 그 중 조율사는 50명 정도로 소수였습니다. 저는 타고난 청음 능력을 인정받아 본사에서 출고 전 악기 검사를 담당했죠. 이후 1985년 춘천 직매장에서 영업과 조율 업무를 맡으며 춘천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회사 정책 변화로 대리점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삼익악기사'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강원 지역의 중심이었던 춘천에서 삼익악기를 운영하며, 악기를 쉽게 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계기로 매장을 지하도상가로 이전하게 되셨나요?

요선동에서 오랜 시간 매장을 운영했는데, 임대료와 관리 비용이 점점 부담이 됐어요. 매장 규모가 50평 정도로 넓었지만, 높아지는 월세와 세금, 전기세 등으로 유지가 어려워졌죠. 결국 올해 초 지하도상가로 이전을 했어요.
지내보니 지하도상가는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월세 부담도 적은 데다가 새로운 고객을 만날 기회도 늘었어요. 요선동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고객이 기존에 알고 있는 단골손님이어서, 외부에서 새롭게 방문하는 고객은 드물었거든요. 지나가던 손님들이 악기에 대해 물어보거나, 흥미를 느끼고 매장을 찾는 일이 늘었습니다.





삼익악기사의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삼익악기사는 단순히 악기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히 쉬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곳을 음악과 사람을 연결하는 휴식 공간으로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어요. 고객이 오셔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죠. 삼익악기사는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삼익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곳이 지역 음악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거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조운



앞으로도 계속될 네버엔딩스토리

라이브카페 스토리 _ 김진형

라이브카페 스토리는 일종의 '병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스토리'는 단순한 라이브카페 이상의 공간이에요. 스토리는 30년째 같은 장소에서 운영중이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어요. 저는 이곳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마음의 병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손님들은 하루,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쌓인 고민과 피로를 풀고, 음악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가죠.



제가 이 공간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내 가게'가 아니라 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시기나 갑작스런 휴업 때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스토리가 사라질까 걱정하며 전화를 주셨어요.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로,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뜸 저에게 '감사하다'며 손을 잡으시더군요. 알고 보니 25년 전 이곳에서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한 분들이었습니다. "진작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스토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저도 감동을 받았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켜켜이 쌓여온 손님들과의 특별한 인연이 스토리만의 매력이자 가치라고 생각해요.

나눔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데, 계기가 있나요?


"기부는 꼭 해야하는것 - 그만큼 책임감도 커"

기부 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89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모금함을 놓고 시작했지만, 현재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 매달 지정기탁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 수익이나 손님들의 팁도 모아 기부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거죠. 기부는 저에게 단순히 돕는 활동이 아니라 제 자신이 삶의 보상을 받는 느낌을 줍니다. 음악과 나눔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 그 자체가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조운 미식회

조운미식회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매주
춘천 곳곳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만들게 된 모임입니다!



각 팀원의 입맛을 소개해 볼까요?

샌드위치 같은 빵 종류를 즐겨 먹어요.
떡볶이 제일 좋아하고 엽떡은 착한 맛만 먹어요. 향신료가 너무 센 음식은 좀 힘들어요. ☺

해산물, 매운 음식, 향신료 등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밥이 제일 좋네요.^^
죽먹음식은 감자탕!

가리는 음식 거의 없이 다 잘 먹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
아 콩국수는 못 먹어요.X

무난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은 못 먹어요. ㅠ

도원뚝배기짬뽕 명동점

뜨끈한 뚝배기 속 진한 국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2번길 16
033-243-3999
뚝배기짬뽕

얼큰한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곳!
끝없이 나오는 홍합과 오동통 새우의 매력도 느껴보세요.
부먹임에도 불구하고 바삭바삭함을 잃지 않은 탕수육
또한 베스트 메뉴입니다. 새콤달콤 탕수육과 걸쭉한
짬뽕 국물의 조화는 따로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추운 겨울날 마지막 한 입까지 뜨거운 뚝배기 한 그릇 하세요~

코디님들의 한줄평

짬뽕밥은 육개장 느낌 살짝 있고 맵기는 적당해여!

비 오는 날, 해장이 필요한 날, 진한 국물이 그리운 날

뜨겁고 진한 국물이 특징이에요. 배고프다고 급하게 먹으려고 하면 입천장 델 수 있으니 조심!

찐~~한 짬뽕을 찾으신다면 도원으로! 홍합을 비롯한 해산물도 들어있고 뚝배기에 나와서 뜨거워요.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

까몬 춘천점

도심 속 베트남 여행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옥천길 9

0507-1346-1531

등뼈 쌀국수

마치 여행을 온 듯 이국적인 분위기. 넓진 않은 공간이지만 시각부터 후각, 미각까지 제대로 느낌 충전! 등뼈가 올라간 쌀국수가 대표 메뉴입니다. 진하게 우러난 맑은 뼈 국물에 계속해서 손이 갔어요. 매콤함이 첨가된 매운 쌀국수와 빕알이 한알 한알 살아있는 볶음밥 또한 미미(美味)였어요!
까몬으로 도심 속 베트남 여행 떠나보세요~

코디님들의 한줄평

(돼지고기 볶음밥) 고슬고슬한 밥하고 다진 돼지고기 식감이 너무 좋아요~ 고소달짝지근한 맛이 중독성 있습니다~~bb

(등뼈 쌀국수) 뼈 국물이라서 그런지 다른 쌀국수집과 조금 차별화된 맛이었어요. 국물을 자꾸 떠먹게 돼요 ^_^ 고기도 실해서 살점 많고 부드러웠습니다!
고수는 따로 요청하면 주시더라구용~

(매운 양지 쌀국수) 국물이 진하고 내가 원하던 매콤한 쌀국수! 가게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또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당~.~

열두달평양손만두

만두 러버 모여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4번길 19-2

033-251-2830

평양 손만둣국, 차돌 얼큰 칼만둣국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요선동 만두 맛집, 열두달평양손만두에 다녀왔어요! 담백한 국물이 당길 땐 손만둣국을, 걸쭉하고 고소한 맛이 당길 땐 들깨 수제비를, 진하고 얼큰한 게 당긴다면 차돌 얼큰 칼만둣국을 추천합니다. 비빔 스타일인 씬국수 또한 별미예요.
중간중간 새콤한 무 김치를 곁들이면 환상의 조합!
두부가 많이 들어가 부드럽고 깨끗한 만두 드시러 가세요~

코디님들의 한줄평

(씬국수) 처음에 씬국수라 해서 얇은 국수 면인 줄 알았는데 면을 씻었다고 씬국수라고 해요~
칼국수 면이라 쫄깃하고 양념은 매콤달콤 해서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입니다!

(손만둣국) 기본 손만둣국을 먹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물이 정말 깔끔하고 좋았어요. 엄청 큼직한 만두 6개가 들어있어 완전 든든! 굉장히 시콤한 무가 킥인 것 같아요^~^

(차돌얼큰칼만둣국) 국물은 보이는 것보다는 많이 맵지 않고 진하고 얼큰해요. 차돌도 많이 들어있고 칼국수랑 만두도 푸짐하게 들어있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차돌얼큰칼만둣국) 차돌이 들어있어서 국물이 진했어요! 개인적으로 양이 많다고 느꼈고, 이제 날씨가 더 쌀쌀해져서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아! 무김치가 매력 있어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



Q. 호반윤슬아트는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 호반윤슬아트는 춘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모임이에요. 이름에서처럼 '호반'은 춘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담고, '윤슬'은 햇빛이 잔잔한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걸 뜻하죠. 우리 모임도 그렇게 예술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17년 결성 이후 매년 두 번씩 회원전도 열고, 각자 개인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데, 모두 생업을 가진 분들이라서 예술에 대한 열정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이번 달에도 갤러리 툰에서 전시를 준비하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총무님께서 주로 다루시는 작품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제 작업은 약간 흐릿하면서 추상적인 분위기를 추구해요. 사진과의 접목 작업도 많이 하고요. 세밀한 묘사보다는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형태를 지향합니다. 최근에는 점묘법이나 붓의 놀림, 흐림 같은 기법을 믹스해서 실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AI를 활용해 사진과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변형시키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고요. 특히, 추상과 사진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제 작품에만 있는 독특한 감각을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기법을 더 발전시켜 공모전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Q. 지하도상가 공간이 모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지하도상가 공간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작업 도구를 집으로 들고 다니며 작업해야 해서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작업을 보관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아서 회원들이 마음 편히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고요. 이곳은 단순히 작업실이 아니라, 전시와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이에요. 매주 월요일에는 선생님을 초빙해 배우고, 평소에는 각자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런 환경 덕분에 예술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고, 회원들끼리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공간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저희만의 속도로, 지금처럼 꾸준히 전시와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조운동네 2024



틈새콘서트 시즌2 1/29~3/25

일상 속 특별한 20분. 월·수·금 점심 틈새 시간을 활용한 버스킹 공연 프로그램, 클래식 장르 위주의 '틈새콘서트 시즌2'가 진행되었다.



2024 조운위크 봄 4/27~4/28

2023년에 이은 '조운위크' 시리즈로 봄날의 따스한 기운이 가득한 체험·공연과 도시재생 미니게임·팝업, SNS 이벤트, 포토존 등이 진행되었다.



2024 녹색교통 해커톤 6/5~6/6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 청년들이 모여 친환경 교통 체계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 '녹색교통 해커톤'이 진행되었다.



상상을 그리다 9/7~10/26

지하도상가 계단에 내가 참여한 그림 작품이 전시될 기회. 총 21명의 학생과 함께한 춘천시 청소년 대상 벽화 사업 '상상을 그리다'가 진행되었다.



틈새콘서트 시즌3 10/8~12/5

보랏빛으로 물드는 가을 저녁, 퇴근길·하굣길에 힐링을 전하는 버스킹 프로그램 '틈새콘서트 시즌3'이 진행되었다.

웰컴 조운동네 11/30~12/15

참여자는 조운웰컴센터에 대해 알아가고, 권역 상인과는 연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를 공유하는 문화행사 '웰컴 조운동네'를 진행 중이다.



상상 한 겨울 12/21~12/22

포근한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상상 한 겨울'. 다채로운 전문 공연과 만들기 체험, 스탬프 투어, 조운동네의 2024년을 되돌아볼 전시(12/16~12/31) 등이 진행 예정이다.





틈새콘서트 시즌3

여섯시 버스킹

10월에서 12월, 약 두 달간 소규모 버스킹 〈틈새콘서트 시즌3〉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여름과 겨울에 이어진 시리즈 프로그램이에요. 점심 틈새 시간을 활용했던 지난 시즌들과 달리 이번에는 퇴근길·하굣길 공연으로 꾸며졌는데요. 바쁘게 보낸 하루의 끝에 가볍게 힐링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또 다른 차별점은 바로 시민참여팀의 대폭 확장이에요. 주 6팀 무대 중 단 1팀만이 전문공연팀으로 시민 공연의 비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지역의 재능 있는 청소년, 동호인 등 춘천시 버스커들에게 무대를 제공했어요.
지난 가을, 조운동네의 저녁은 틈새콘서트로 물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협조: 마실스냅



좋은 소식

상상 한 겨울

12월 21일, 22일 겨울 숲속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연말을 맞이해 지하도상가에서 문화행사 〈상상 한 겨울〉이 진행되니 설레는 마음 안고 놀러 와주세요~

문의 033-250-4937 편지영 코디네이터

웰컴 조운동네

요선동 조운웰컴센터에서 〈웰컴 조운동네〉가 진행 중입니다. 사전 모집 프로그램으로 3주 동안 각종 체험과 공연이 채워진 반짝이는 주말을 즐길 수 있어요!

문의 033-250-4936 우정현 코디네이터

2025 상상언더그라운드 입주팀 모집

2025년 상상언더그라운드 공실 입주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되니 자세한 내용은 조운동네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춘천 모델들, 국제뷰티페스티벌 석권!



모델협회 춘천지회가 2024 원주 국제뷰티페스티벌에서 화려한 수상 소식을 전했어요! 최우수상은 윤재순 님, 금상은 성수미 님, 동상은 동선자 님이 차지하며 실력을 빛냈습니다. 특히 춘천 지하도상가 소공연장에서의 꾸준한 준비가 큰 힘이 되었고, 런웨이 의상도 지하도상가에서 직접 구매해 지역 상권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받았답니다.